

떠오를 스타들



<루니>



<메시>



<호니우두>



<포돌스키>

루니 뜨고

(잉글랜드)

지단 지나

(프랑스)

■ 관심 끄는 스타·기록들

사상 최대의 지구촌 축제인 월드컵은 매년 위대한 기록과 명승부, 스타플레이어와 감독들에 대한 흥미로운 이야기 거리를 제공한다. 2006 독일 월드컵에서는 어떤 기록과 이야기들이 지구촌을 달굴것인지 미리 짚어보자.

브라질, 2연속·통산 6회 우승 도전

▲브라질 월드컵 최다 6승 도전-월드컵 최다 우승국가(5회 58, 62, 70, 94, 2002년)의 대업을 이룬 '삼바 군단' 브라질이 6회 우승에 도전한다.

또 하나 브라질이 44년만에 월드컵 2연속 제패를 할 수 있을 지도 관심이이다.

독일 칸·프랑스 지단 마지막 무대?

▲은퇴 앞둔 베테랑들 '고별무대' 이번이 생애 마지막 월드컵이 될 노장들의 활약여부도 주목거리다.

프랑스의 '중원의 사령관' 지네딘 지단(34), 독일 전차 군단의 수문장 올리버 칸(37), 브라질의 주장으로 정식적 지주인 카푸(36), 네덜란드의 수문장 에드윈반데사르(36), 세계 A매치 최다골(107골)기록 보유자인 이란의 알리 다에이(37) 등은 이번이 마지막 월드컵 무대가 될 전망이다.

루니·메시 등 '영플레이어' 후보

▲사상 첫 '최우수 영플레이어'는 누구? 최고의 '영건'을 가리는 최우수 영플레이어상이 신설됐다. 종전까지 월드컵 공식시상은 최우수선수등 3개 부문이었다.

이번 대회부터 준결승이 끝날때 까지 21세 이하 선수들을 대상으로 6명의 후보를 낸 후 최고의 영건을 가린다. 아르헨티나의 리오넬 메시(19·바르셀로나), 잉글랜드의 웨인 루니(21·맨체스터 유나이티드), 포르투갈의 크리스티아누 호나우두(21·맨체스터 유나이티드), 독일의 루카스 포돌스키(21·볼프스부름) 등이 후보감으로 꼽히고 있다. 한국팀에서는 박주영, 백지훈이 후보자격이 있다.

잉글랜드, 37년만에 스웨덴 이길까

▲조별리그 '얼굴은 만남' B조에 편성된 잉글랜드와 스웨덴이 대표적인 악연, '축구종가' 잉글랜드는 무려 최근 37년동안 스웨덴을 상대로 단 한번도 이겨본 적이 없다. 2002 한일월드컵때도 1-1로 비겼다. 2회 연속 잉글랜드 대표팀을 이끄는 스웨덴 출신 에릭손 감독이 또다시 조국을 조별리그에서 만난것도 이색적이다.

'죽음의 조' B조는 국제축구연맹 랭킹 2위 체코, 6위 미국, 12위 이탈리아, 48위 가나가 맞붙어 명승부를 펼칠 것으로 기대된다.

/최재호기자 lion@kwangju.co.kr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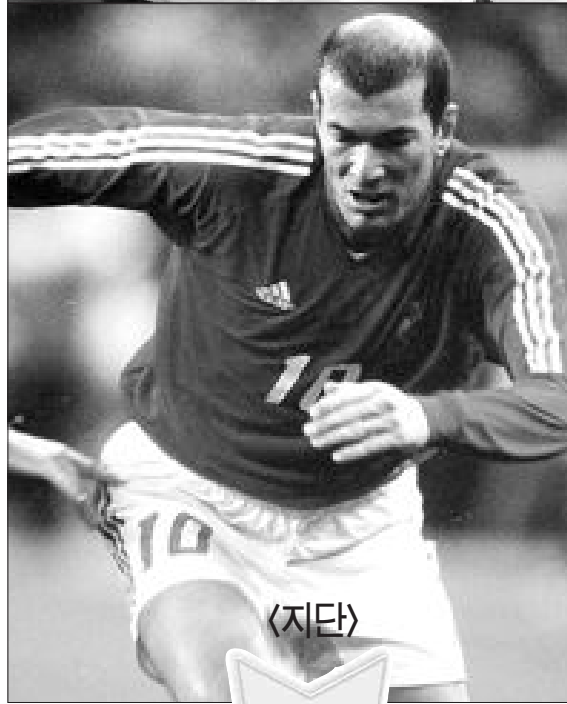
<반더사르>



<카푸>



<칸>



<지단>

물러날 스타들

2006 독일 월드컵

■ 한국, 16강 진출 위해선

토고전 다득점이 관건

"가능한 한 많은 골을 넣으라"

2006독일월드컵을 준비하는 한국대표팀의 화두다.

독일 월드컵부터 동유럽 경우 16강 진출을 가리는 방식이 바뀌면서 모든 팀들은 다득점과 소실점에 신경을 곤두세울 수밖에 없다. 예전에는 승점이 같을 경우 팀간 골득실-다득점을 적용한 뒤 조별리그 전 경기의 골득실과 다득점을 따졌다.

하지만 독일월드컵부터는 적용 순서가 변경됐다. 우선 조별리그 전 경기의 골득실과 다득점을 먼저 따진 뒤 해당팀 간의 골득실과 다득점을 적용하게 된다.

한국이 속한 G조에서도 동물이 나올 가능성이 있다. 객관적 전력상 아프리카의 토고가 최약체로 꼽힌다. 따라서 다른 팀들이 토

고를 상대로 모두 승리를 거둘 경우 2장의 16강 티켓을 놓고 골득실과 다득점까지 따져야 하는 복잡한 상황이 올 수 있다.

일단 프랑스가 3전전승으로 1위를 확보한 상태에서 한국과 스위스가 무승부를 기록할 경우 1승1무1패(승점 4점)로 동물이 될 것이다. 이를 대비해 한국은 토고전에서 최대한 많은 득점을 올려야 하고 반대로 프랑스 전에서는 실점을 최대한 줄여야 한다. 이들 3팀이 물고 물리는 접전을 펼쳐 모두 2승 1패 가 됐을 경우도 이규정이 적용되기 때문에 토고전의 중요성은 커질 수밖에 없다.

물론 한국으로서의 승점만을 가지고 당당하게 16강에 진출하는 것이 최상의 시나리오다. 하지만 만일의 사태에 대비해 매경기 '다득점, 소실점'을 항상 기억해야 한다.

■ G조 경기 중 최대 이벤트

한국-스위스, 조직력 대결

한국은 지난해 12월 라이프치히에서 실시된 조 추첨에서 토고, 프랑스, 스위스와 함께 G조에 속했다. 일단 강호들을 피한 무난한 조 편성이라는 평가를 받고 있다.

한국은 6월 13일 밤 10시 프랑크푸르트에서 토고, 6월 19일 새벽 4시 라이프치히에서 프랑스, 6월 24일 새벽 4시 하노버에서 스위스와 조별리그를 각각 치르게 된다.

탁 아드보르트 감독이 지휘봉을 잡고 대표팀이 제정비 되면서 2002년 4강 신화에 버금가는 또 다른 신화창조에 대한 기대가 높아지고 있다.

최소한 16강은 가야 한다는 것이 축구계나 팬들의 공통된 인식이다. 하지만 최근 한

국팀의 스트라이커 이동국이 십자인대 과열로 출전이 불투명해져 막구름을 들고 있는데다 축구공은 돌글다. 그런 만큼 누구도 결과를 자신할 수 없다.

하지만 한일월드컵 8강국 세네갈을 따돌리고 본선무대에 첫선을 보이는 토고는 비교적 만만한 상대로 여겨지고 있다. 그렇지만 에마누엘 아데바요르(아스날)를 중심으로 하는 공격력은 파괴력을 인정해주고 있다. 프랑스는 우승을 다투는 축구 최강국으로 전력이나 명성, 선수구성에서 한국이 상대하기에는 버거운 감이 있다.

조직력이 감점인 스위스는 한국과 2위팀을 다툴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 아드보르트 대회 개막前 일정

내달 11일 최종 엔트리 확정

한국 대표팀은 5월 10일을 전후해서 다시 모이게 된다. 협회는 5월 중순 이후 두 차례 정도의 평가전을 치를 계획이다. 프랑스, 스위스, 토고와 비슷한 스타일의 팀인 스파링 파트너가 될 것으로 보인다.

5월 11일 최종엔트리(23명)가 확정되면 23일과 26일 세네갈과 유럽 한 팀을 상대로 국내에서 2차례 평가전을 갖을 예정이다. 이어 스코틀랜드 글래스고로 출발, 6월 2일 노르웨이 오슬로에서 노르웨이팀과 평가

전을 치른 뒤 다시 스코틀랜드로 돌아와 4일 가나와 일정을 갖고 베스트 11의 청사진을 그리게 된다.

대표팀은 이후 베이징을 떠날때 입장, 마지막 컨디션 점검하고 13일 밤 10시 프랑크푸르트에서 토고를 상대로 대망의 독일월드컵 첫 경기를 치르게 된다. 2차전은 19일 새벽 4시, 예선 마지막 경기인 스위스전은 24일 새벽 4시에 열린다.

/최재호기자 lion@kwangju.co.kr

2006독일월드컵 본선 조별 경기 일정

경기장	한국시간 기준																							
	6월 10일	11일	12일	13일	14일	15일	16일	17일	18일	19일	20일	21일	22일	23일	24일									
베를린				브라질-크로아티아 (04시)		스웨덴-파라과이 (04시)					에티오피아-독일 (23시)					우루과이-튀니지 (23시)								
도르트문트		프랑스-튀니지 (01시)				독일-폴란드 (04시)				토고-스위스 (23시)					일본-브라질 (04시)									
프랑크푸르트	잉글랜드-파라과이 (23시)			한국-토고 (22시)					포르투갈-이란 (23시)						네덜란드-아르헨티나 (04시)									
칼레리엔	독일-튀니지 (04시)			미국-체코 (01시)		아르헨티나-세르비아 (22시)				포르투갈-멕시코 (23시)														
하노버				이탈리아-가나 (04시)			에티오피아-코스타리카 (22시)				사우디아라비아-우크라이나 (01시)					체코-이탈리아 (23시)								
카를스루에		호주-일본 (23시)							멕시코-잉글랜드 (04시)							한국-스위스 (04시)								
뮌헨				잉글랜드-포르투갈 (04시)							코스타리카-폴란드 (23시)													
라이프치히				세르비아-파라과이 (22시)		스페인-우크라이나 (22시)				한국-프랑스 (04시)			아르헨티나-잉글랜드 (23시)			미국-프랑스 (04시)								
뮌헨		독일-코스타리카 (04시)															프랑스-호주 (04시)							
뉘른베르크				멕시코-이란 (01시)			튀니지-사우디아라비아 (01시)																	
슈투트가르트																		일본-크로아티아 (23시)						
																			네덜란드-프랑스 (04시)					
																			스페인-튀니지 (04시)					

